

2. 年齡은 3個月부터 52세 사이였으며, 1세부터 5세 까지가 58%로 가장 많았다.

3. 主症狀은 咳嗽; 68%, 呼吸困難; 52%, 青色症; 18% 順이었다.

4. 氣道異物 診斷時 病歷이 確實한 경우는 66%이었다.

처음 誤診率은 28% 이었으며 그中 57.1%가 上氣道 感炎으로 인한 誤診이었다.

5. 처음 來院時 聽診上 呼吸音 減少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喘息音이 24%, 正常이 26%이었다.

放射線 檢査上 肺氣腫이 82%, 肺不全擴張이 20%이 었으며, 正常範圍가 18%이었다.

6. 來院까지의 期間은 24時間以內가 48%로 가장 많 았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1년반 이었다.

來院後 除去까지의 期間은 24時間 以內가 68%이며 가장 오래 걸린 例는 9日이었다.

7. 治療는 氣管切開한 경우가 24%로 그中 75%가 植物性 氣道異物이었다.

Ventilating bronchoscopy 로 治癒된 경우는 72%이 었으며, 自然排出된 경우가 8%, 氣管切開瘻으로 自然 排出된 경우가 6%, 開胸術로 治癒된 경우가 6%, 그 외 死亡, 喉頭直達鏡, 氣管直達鏡에 의한 除去가 각각 2%이었다.

8. 氣道異物の 종류는 植物性 46%, 金屬性 28%, 프 라스틱 18%, 動物性 8%이었다.

9. 異物の 所在는 氣管 16% 右側氣管支 52%, 左側 氣管支 28%, 未詳 4%이었다.

### 9. 氣管支內視鏡下에 施行한 組織生檢에 對한 考察

서울醫大

·高健成·柳章烈·朴奭根  
趙泰權·盧寬澤·金弘基

1968年 Ikeda 가 처음으로 flexible fiberoptic bron- choscope 를 소개한 후 기관지경의 利用은 急速히 확대 되었다. 이에 따라 氣管支鏡檢査中에 診斷을 目的으로 하는 組織生檢도 빈번히 施行하게 되었다.

著者들은 1976年 6月부터 1978年 1月까지 施行한 233 例의 氣管支鏡檢査中 組織生檢을 施行한 71例를 分析 觀察한 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20個月간 의뢰된 233例의 氣管支鏡檢査中 組織生 檢이 必要했던 경우는 30.5%인 71例이었다.

2. 組織生檢이 必要했던 71例의 主訴는 咳嗽(17例), 呼吸困難(16例), 咯痰(15例) 등이 全體의 60%를 차지 하며 胸痛, 咯血의 順이었다.

3. 組織生檢의 部位는 右上葉氣管支가 21.1%로 제 일 많았고, 左主氣管支, 左上葉氣管支, 右主氣管支, 左下葉氣管支등의 順이었다.

4. 組織生檢이 必要했던 71例의 原因疾患은 肺癌이 80%(57例), 結核이 15%(11例), 惡性中皮腫, 炭粉症, 麴菌症(aspergillosis)등이 各 1例이었다.

5. 肺癌이 生檢結果 확진된 것은 57例中 36例로 63% 의 診斷率을 보였다.

6. 肺癌으로 確診된 36例의 病理學的 所見은 扁平上 皮癌이 64%(25例), anaplastic 25%(9例), 腺癌과 分類 할 수 없는 것이 各 1例이었다.

7. 71例中 氣管支造影術을 한 例는 51%인 36例이였 으며, 그 時期는 氣管支鏡檢査前에 施行한 것이 1/4, 後에 施行한 것이 3/4이었다.

8. 71例中 76%(54例)에서, 細胞診斷學 檢査를 併行 하였으며, 이 結果는 PAP class V가 15%, class IV가 7.5%, class III가 1.8%이었다.

### 10. 耳鼻咽喉科外來에서 施行한 喉頭組織生檢 142例의 臨床統計的 考察

서울의대

高健成·柳章烈·黃淳宰  
林尙燮·朴賢秀·白萬器

喉頭疾患은 早期診斷 및 治療에 依하여 그 豫後가 크 게 左右되며 確診을 爲하여는 組織生檢이 必須的이다.

著者들은 喉頭疾患의 早期診斷에 도움이 되고자 1973 年부터 1975年까지 3年間 서울醫大附屬病院 耳鼻咽喉 科外來에서 間接喉頭鏡, 또는 喉頭直達鏡下에 喉頭組 織生檢을 施行한 142例에 對하여 臨床統計的 分析考察 을 施行하였으며,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組織生檢例는 總 124例이였으며, 男子 109例(76.8 %), 女子 33例(23.2%)이었다. 男女比는 3.3:1이였 다.

2. 年齡別로는 50代, 60代가 각각 41例(28.8%)로 가 장 많았으며, 40代(19.7%), 30代(11.2%)의 順이었다. 50代, 60代의 男女比는 각각 7:1, 6:1이었다.

3. 主訴는 嘎聲이 127例(89.4%)로 가장 많았으며, 嚥下困難이 7例(4.9%)였고 기타 咽喉痛, 呼吸困難 등 이었다. 嘎聲의 發生부터 來院까지의 期間은 平均 8.1

個月이었으며 2~6個月이 56例(44.0%)로 가장 많았고 6個月~2년이 34例(24%), 2個月 이내가 17例(13.4%)였다. 3年以上은 15例(11.8%)였다.

4. 組織生檢部位는 眞聲帶가 76例(53.5%)였으며 假聲帶가 23例(16.2%), 喉頭蓋가 19例(13.3%)였고, 그 외에 披裂軟骨部, 前連合, 聲門下域의 順이었다.

5. 組織生檢結果는 惡性腫瘍이 69例(48.6%), 喉頭結節 20例(14.0%), 喉頭乳頭腫 15例(10.5%), 喉頭結核 12例(8.4%)였으며, 기타의 良性腫瘍이 15例(10.6%), 非特異性炎症이 7例(5.0%)의 順이었다.

6. 惡性腫瘍을 의심하였으나 非特異性炎症이나 喉頭結核등으로 判明된 경우가 13.4%였다.

### 11. 嚥下困難을 主所. 來院한 患者의 臨床 統計의 考察

서울醫大

尹奉鉉·鮮于大活·高健成·金鎮永

嚥下困難은 疾病이나 機能障碼의 出現을 나타내는 症勢로서 原因 및 發生部位가 다양하다. 1977年度 1年間 서울大學病院 耳鼻咽喉科 外來에 嚥下困難을 主訴로 來院한 133名의 患者를 臨床統計의으로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嚥下困難을 主訴로 來院한 患者는 全體 耳鼻咽喉科 外來 來院患者 9313名의 2.1%에 該當한다.

2. 性別男女의 比는 1.3:1로 男子가 약간 많았고, 平均年齡은 35.7歲이다.

3. 自覺症狀의 持續期間은 平均 251日이나, 1年 以上의 食道腐蝕症 8例를 除外하면 平均 40日이다. 좀 더 자세히 分類하면 1週 以下 67例(50.4%), 1週~1個月 24例(18.0%), 1個月~1年 34例(25.6%), 1年 以上 8例(6.0%)로 나타났다.

4. 發生部位別로 보면 食道 27例(20.3%)보다 口腔—咽頭—喉頭 등이 106例(79.3%)로 約 4배가 된다.

5. 原因의 要素를 보면 炎症性 67例(50.4%), 腫瘍性 28例(21.0%), 腐蝕劑의 誤嚥事故 14例(10.5%), 異物 11例(8.3%)등의 順이다.

6. 疾病別로 보면 咽頭炎 및 扁桃炎 42例(31.6%), 食道腐蝕症 14例(10.5%), 口內炎 14例(10.5%), 喉頭腫瘍 12例(9.0%), 扁桃周圍膿瘍 9例(9.8%), 食道異物 7例(5.2%), 舌腫瘍 7例(5.2%), 扁桃腫瘍 6例(4.5%), 咽頭異物 4例(3.0%)등의 順이다.

### 12. 聲門下部에 發生한 Granular Cell Myoblastoma 1例

서울의대

高健成·禹勳永·田丙勳  
張善吉·金光顯·盧寬澤

Granular Cell Myoblastoma는 筋肉에 發生하는 극히 드문 腫瘍으로 1931年 Ahrikossott 氏가 聲帶에서 發生한 것을 처음으로 보고 하였다.

好發部位는 舌이며 그外 口腔의 다른 部位나 喉頭, 氣管에 생길 수 있다.

이 疾患은 그 上部粘膜炎의 假性上皮增殖이 同伴되는 수가 많으므로 惡性腫瘍으로 혼동되기 쉬운 점 때문에 臨床의으로 중요하다.

著者들은 17세된 女子로서 3年間 계속된 嘎聲을 主訴로 來院하여 手術받은 聲門下部의 granular cell myoblastoma 1例를 經驗하였기에 文獻考察과 더불어 報告하는 바이다.

### 13. 喉頭に 發生한 原發性 惡性淋巴腫 1例

서울의대

禹勳永·高健成·李熙培  
全時瑛·吳耕畚·白萬基

喉頭に 發生하는 惡性淋巴腫은 극히 드물며 특히 原發性인 경우는 더욱 드물다.

1934年 Mackenty 가 처음 喉頭的 惡性淋巴腫을 보고한 이래 28例가 보고 되었다. 그中 原發性인 경우는 8例 이었으며 아직 國內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 著者들은 呼吸困難과 嚥下障碼를 主訴로 來院하여 喉頭的 原發性 惡性淋巴腫으로 診斷된 10세 男子患者를 經驗하였기에 文獻考察과 더불어 報告하는 바이다.

### 14. 성대결절적출전후의 음성기능에 관한 임상적 연구

梨花醫大

文 英 一

1974년 5월부터 1977년 4월까지 만 3년간 이화여자 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간접후

quency.

3. Biopsy sites were as following in frequency:

Rt. upper lobe, Lt. main bronchus,

Lt. upper lobe,

Rt. main bronchus, Lt. lower lobe.

4. The final diagnosis of biopsied cases were cancer 80%, tuberculosis 15%, and malignant mesothelioma, anthracosis, aspergillosis, were one case each.

5. Among 57 case of lung cancer, biopsy confirmed cases were 36 cases (63%).

6. Pathologic finding of 36 case of Biopsy confirmed lung cancer was as following:

Squamous cell ca : 64% Anaplastic ca : 25%

Adeno ca : 2.8% Unclassified : 2.8%

7. Bronchographies were done in 36 cases (51%), one quarter of cases before biopsy, and three quarters of cases after biopsy.

8. Cytology was requested in 76% of cases with following results:

PAP class V 15%, class IV 7.5%, class III 1.8%.

#### 10. A Clinico-Statistical Study of the Biopsy Result of the Larynx

Keun Sung Koh, M.D., Jang Yuorl Uoo, M.D.,  
Soo Jae Whang, M.D., Sang Hyuk Lim, M.D.,  
Hyun Soo Park, M.D., Man Kee Paik,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gnosis of the laryngeal diseases is highly dependent on the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The biopsy finding is inevitable for the confirmed diagnosis. A clinico-statistical survey of the biopsy result of the larynx in 142 cases was done at the Department of the Otolaryng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a period of 3 yrs from 1973 to 1975.

Results are as follows

1. Of the 142 cases, 109 cases (76.8%) were males and 33 cases (23.2%) females. Sex ratio was 3.3 : 1.

2. Age distribution shows 41 cases (28.8%) in 5th decade, 41 cases (28.9%) in 6th decade.

3. Chief complaint was hoarseness 127 cases (89.4%), dysphagia 7 cases (4.9%) and sore throat, dyspnea etc. The time lag from the onset of hoarseness to the hospital was 2~6 Months, 56 cases (44.0%), 6 Months~1 yrs, 34 cases (24%), within 2 Months, 17 cases (13.4%) and 15 cases (11.8%) were over 3yrs. Average time lag was 8.1 Months.

4. The site of laryngeal biopsy was 76 cases (53.3%) from true vocal cord, 23 cases (16.2%) from false vocal cord, and 19 cases (13.3%) from epiglottitis.

5. Biopsy result was carcinoma in 69 cases (48.6%), laryngeal nodule in 20 cases (14.0%), laryngeal tuberculosis in 12 cases (8.4%) and non specific inflammation in 7 cases (5.0%).

6. 13.4% of the clinically impressed laryngeal carcinoma proved to be laryngeal tuberculosis, non-specific inflammation etc.

#### 11. The Clinico-Statistical Analysis of Dysphagia

Jae Hyeon Youn, M.D., Dae Hwal Sunoo, M.D.  
Keun Sung Koh, M.D., Jin Young K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ysphagia or difficulty in swallowing is a symptom which indicates the presence of disease or dysfunction.

Because the cause & the original site are variable, it is significant to study the clinicostatistical analysis on 133 cases with complaint of dysphagia during the last one year in the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the total O.P.D. patients (6313 cases), patients complaining the dysphagia are 2.1%.

2) Male to female sex ratio is 1.3 to 1, slightly predominant in male and average age are 35.7 years.

3) The duration of chief complaint is about 251 days in average, but excluding the 8 cases with more than year of symptom, it is about 40 days. In detailed analysis of the duration: 67 cases (50.4%) occurred within 1 week: 24 cases (18.0%), 1 week